



HEART to HEART 봉사활동 이모.저모.

본부

연말 불우이웃돕기

당행은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국민과 함께 하는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12월 중에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전행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성태 총재는 12월 17일 여명학교(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학생 및 교사들 30여명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기부금 및 선물을 전달한 후 화폐박물관 견학, 특별 경제교육 등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이성태 총재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정진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한편 송창현 부총재보를 비롯한 직원들은 12월 17일 회현동 및 남대문로 일대 쪽방촌을 방문하여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위로하였다. 당행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모임 한국은행 자원봉사회도 회현동 일대의 쪽방촌 독거노인, 나사로의 집 등을 방문하여 후원금 지원, 세탁·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한편, 본부직원들은 브니엘의 집, 쉼터요양원, 노숙자의 쉼터 등 당행과 지속적인 후원관계를 맺고 있는 13개 복지시설을 12월 10일~19일 중 방문하여 성금, 쌀 및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세탁·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기간 중 임·직원들이 베풀어 준 관심과 이웃사랑의 실천이 불우이웃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씨앗이 되어 내일을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창순 통신원)

한길회, 성가정입양원 방문

한길회(집행간부 부인회)는 1월 15일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성가정입양원은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부터 입양되기 전 만 두 살 미만의 어린 유아들을 보살피는 국내입양 전문기관으로 지금까지 2,20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통하여 입양되었다고 한다. 이번 성가정입양원 방문시에는 태어난지 10일부터 5주일 정도 된 아기들과 3개월 된 아기가 있어, 태어나자마자 혼자 된 천사같은 아기들을 돌아보며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일반인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점차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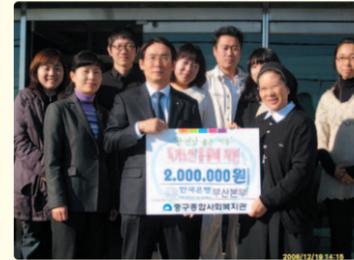
고 있어 많은 아이들이 따뜻하고 좋은 환경의 가정에 입양되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한다. 한길회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을 맞아 성가정 입양원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회원들 개인적으로도 여러 기관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성가정입양원 측에서도 잊지 않고 매번 찾아와 격려해 주는 한길회의 한결같은 따뜻한 마음과 성원이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조영순 통신원)

부산본부

박창현 통신원

독거노인 유류비 지원

부산본부는 12월 19일 부산시 중구 관내 독거노인 가정에 대하여 난방용 유류비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후원은 부산본부 자원봉사회(부자회)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천한 중구관내 독거노인 가정에 대하여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월동용 난방유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날 성금을 전달한 이용호 본부장은 앞으로도 불우이웃 등 소외계층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눌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2003



년 10월에 결성된 한국은행 부산본부 자원봉사회는 용두산공원내 매월 '사랑의 집' 무료급식지원, 짝수달 영도 천성재활원 봉사, 매월 조순가정 학생돕기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경북본부

권숙자 통신원

자매마을주민 겨울 나들이

대구경북본부는 1월 15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청도군 금천면 김전1리 마을주민 80여명을 은행으로 초청하여 방문견학 행사를 실시하였다. 새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이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을 출발한 주민들은 정회식 기획조사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인사를 받으며 지난해 마을에서 기증하여 정원에 식수한 감나무를 살펴보는 등 지역본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지역본부 견학을 마친 후에는 거제도도로 이동하여, 거제 포로수용소와 대우조선소를 견학하였다. 포로수용소에서 마을 어르신들은 6.25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는 그랬었지'라며 눈에는 전시물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대우조선에서는 건조되고 있는 선박의 엄청난 크기에 놀라워하기도 하였다. 마을주민들은 한국은행 덕분에 좋은 구경을 하게 되었다며 기뻐하였고 지난해에 '1사1촌 상'을 수상했듯이 올해에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자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목포본부

김정호 통신원

자매결연 아동 방문

목포본부는 1월 22일 설을 앞두고 3명의 자매결연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목포본부는 2005년 6월 이들과 처음 자매결연을 맺은 뒤 4년 가까이 인연을 지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였으나 해가 지날수록 친근해져 이제는 우리직원들이 방문하면 자매결연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이가 되었다. 목포본부가 지원하는 자매결연 아동들은 부모와 헤어져 조부모님과 생활하고 있거나 부모님의 병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다. 우리의 작은 성의가 이들에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세상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소망해본다.



아동복지센터 청소년 초청 견학

목포본부는 1월 15일 관내 지역아동복지센터인 경애원과 목포아동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78명을 초청하여 방문견학 행사를 실시하였다. 새해 첫 손님이로 찾아온 아이들은 화폐전시실을 관람하고 화폐 출납창구 등을 견학하며 마냥 즐거워 하였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경제교육 시간을 통해 금융과 신용에 관련된 내용의 강의



가 이루어졌다. 복지시설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많지 않은 정착금을 지원받아 독립해야 하는데 경제교육을 접하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최근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한순간에 정착금을 탕진하는 사례가 많으며 복지시설에서 우리본부에 특별교육을 부탁하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지시설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대전충남본부

김보희
통신원

설맞이 릴레이 봉사활동

대전충남본부 70여 명의 직원이 회원으로 가입된 '한은나눔회'는 설을 앞둔 1월 22일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루시 모자원'과 '샤론원'을 차례로 방문하는 릴레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방문한 '루시 모자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기관이며 '샤론원'은 장애아동들이 특수학교를 마치고 음악치료와 놀이치료 등을 통해 재활교육을 받는 장애아동 특수교육센터이다. 한은나눔회 회원들은 자체 모금한 돈으로 생필품과 과일을 마련하여 전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훈훈한 사랑을 교감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두 분 원장님은 오늘 방문으로 명절일수록 더욱 소외되기 쉬운 이곳 가족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며 감사사를 표하였다.



충북본부

정천수
통신원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 전달

충북본부는 지난 추석명절에 이어 올 설에도 우리 주위의 소외된 불우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하였다. 지난 20, 21일 양일간 우리본부 직원들은 매일 자신의 급여에서 조금씩 떼어 마련한 성금을 가지고 진천에 위치한 '평화선교 복지회'와 독거노인 두 분을 방문해 성금과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20일 방문한 '진천 평화선교 복지회'에서 원장님은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요즘 힘든 상황이지만 원생들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복지회 살림은 물론 각자의 미래를 위한 통장을 하나씩 불러나가고 있다며 올해도 희망차다고 얘기해 직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일게 하였다. 다음날 방문한 독거노인 중 한 분은 2001년까지 약 10년간 우리본부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무하시다가 뇌출혈로 건강이 악화되어 퇴직하셨는데 아직까지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살림살이까지 어려워 힘든 날을 보내고 있어 방문한 우리 직원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그래도 직원들의 방문에 잠시나마 반색하시는 모습에 우리 직원들은 웃으며 올해엔 건강을 되찾으시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편 우리본부 청소용역업체 직원 두 분에게도 작지만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성금을 전달해 한은가족의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강원본부

박성민
통신원

설맞이 무료 급식 봉사

강원본부 자원봉사 모임인 나누리회는 지난 1월 21일 주말 오후 '월드비전 춘천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를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100여 명의 장애우와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갈비탕을 대접하는 무료급식 행사를 실시하였다. 여자직원들은 주방에서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고, 남자직원들은 배식과 설거지에 손을 보탤다. 구수한 국물 맛에 한 그릇 더 청하는 분들이 많아 여유있게 준비한 음식이 어느새가 동이나 버렸다. 문 앞에 서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께 명절 선물과 함께 설떡과 과일을 꾸미고 한 봉지씩 손에 쥐어 드렸는데 그분들의 흐뭇해하시는 표정은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잊게 해주었다. 이날 직원들은 자발적인 성금과 노력봉사로 운영되는 봉사모임인 나누리회가 날이 갈수록 번창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빌었다.



인천본부

김주연
통신원

아이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길

인천본부의 자원봉사 모임인 '미추홀 자원봉사회'는 설날을 맞이하여 1월 21일 천주교아우구스띠노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인 '너랑나랑의 집'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없어 얼어붙기 쉬운 아이들의 마음에 작지만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도 함께 전달하였다. '미추홀 자원봉사회'는 올해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성금전달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본부

안상기
통신원

동보원 원생들과 뜨거운 농구장의 열기속으로

경남본부는 1월 28일 동보원 원생 25명을 초청하여 본부 견학과 함께 LG세이커스 농구경기를 관람하였다. 이번 초청행사는 그 동안 동보원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던 중 우연찮게 나왔던 농구경기 약속을 경남본부 직원들이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업무팀 창구 견학, 화폐전시관 관람, 바람직한 소비생활에 대한 경제교육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권과 옛날 화폐들을 구경하는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신기함과 호기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다함께 성산체육관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농구경기장으로 향하였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찬 농구경기를 관람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선수들과 같이 뛰는 기분으로 몰두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서 너무 좋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소중한 자리였다.

강릉본부

손원
통신원

공부방 어린이 초청 방문견학

강릉본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강릉지역의 8개 방과후 공부방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방문견학 행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내 15개 방과후 공부방들의 협의체인 공부방 네트워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견학 행사에 참가한 공부방 어린이들은 강릉본부 강당에서 한국은행이 하는 일에 대해 소개 받고 화폐전시실을 둘러본 후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을 방문, 돈꾸러미를 들어보기도 하고 현 돈을 새 돈으로 바꾸기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공부방으로 돌아갔다. 방과후 공부방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가 생계유지에 바빠 학원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급식지원, 교과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가 끝난 후 텅 빈 집에 혼자 돌아간다는 뜻으로 "열쇠 아동"이라고 지칭되기도 하는 이들 어린이들은 가정에서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아동비행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데 방과후 공부방에서는 이들을 위해 심리적·정서적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등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본부

이선구
통신원

사랑나눔 행사

강남본부 사랑나눔회는 설을 맞아 조순가정 2곳을 방문하여 지난해 연말 목표성과분석회의에서 모금한 성금과 과일 등을 전달하였다. 사랑나눔회는 2004년 모임 결성 이래 장애 1급의 몸으로 금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손녀를 보살피는 이할머니 가정과 고2 및 대학생이 되는 손자 둘과 생활하는 김할머니 가정에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명절과 창립기념일 등에는 가정을 방문,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오랜 기간의 도움 덕분에 손주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할머니의 말씀과 함께 특히 올해 대학의 호텔 조리학과에 진학하여 일류호텔 조리사의 꿈을 키워가며 든든한 기동으로 성장하는 손자를 보면서 직원들은 사랑나눔의 소중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제주본부

김낙현
통신원

춥지만 훈훈한 겨울

제주본부 느영나영회는 1월 31일 직원 및 직원 가족들과 함께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인 '창암재활원'을 방문하여 시설내 아동들을 위로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방문은 작년 말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후 연이은 것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제주본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제주말로 너랑나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느영나영회는 6년 전에 조직된 제주본부 내 자발적 봉사모임으로 분기마다 장애인 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본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교육 모델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해 실시한 다문화가정 경제교육에 이어 올해는 탈북자와 보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